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유지수, 김주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학과

Ji-Soo Yu(lilstars@naver.com), Ju-Yeon Kim(sarah0@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북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1-4학년 남학생 105명과 여학생 103명, 총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 및 수치심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수치심은 각각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졌으며, 수치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진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수치심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논의와 제한점을 비롯하여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 대인관계능력 | 수치심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otal 208 1st~4th grad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ham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had nega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rd, The higher the degree of shame, the more nega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th, Sham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s implies that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directly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using shame as a mediato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Shame | Mediating Effects | University Students |

I.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대학생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만큼 대인관계능력은 중요한 적응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 대인관계능력이란 타인 및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적 교류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관계 안에서의 문제 및 갈등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2]. 이와 같은 대인관계능력의 정의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능력이 낮다는 것은 타인과 소통적으로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인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을 경우,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과제 수행력을 비롯해서 자기개발의 동기를 상실하게 되어 학교이탈이 야기될 수 있다[3][4]. 또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심리·정서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잦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비하 및 낙담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비롯하여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5-7].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에 따른 대학생활의 적응을 고려할 때, 건강한 대학생활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는 충분한 필요성을 가진다.

대인관계능력을 타인과의 상호·교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기본적으로 일차적 사회관계망이 되는 가족 내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다. Bartholomew와 Horowitz[8]는 양육자와의 상호·교류적인 경험은 가족 밖의 대인관계 양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들이 심리내적으로 건강한 자기감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비롯하여 적응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생은 청년기에 해당되며,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시기이다[9][10]. 이는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시기를 지나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발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최근 정서·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여 함께 지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11]. 강현선[12]은 성인기 자녀의 부모 의존 동거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논하였다. 특히 과잉·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분화하지 못하고, 자아정체감 역시 통합적으로 확립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작용한다고 하였다. 정은영과 장성숙[13]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 자율성 저해 등의 과보호적인 특성은 자녀의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잠재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세경과 손미경[14]의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았다고 지각한 대학생의 경우, 갈등상황에 대한 조망력이 낮아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대인관계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로 인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에 대한 불안을 내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14]. 이와 같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기에는 심리사회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써 기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방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독립된 성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자녀 주위를 맴돌면서 과도한 돌봄과 통제 및 간섭을 하는 소위 헬리콥터부모(Helicopter parents), 캥거루부모(Kangaroo parents)로 일컬어지는 부모들의 성인자녀 사회부적응[15][16]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

해서 부정적으로 자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17],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과도하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적인 특성은 자녀로 하여금 혼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8]. 또한 상대적으로 도전과 시도의 경험이 적으며, 실패와 좌절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실패로 자각하고 새로운 활동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스스로를 만족스럽지 않게 지각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다[18][19]. 박윤선과 채규만[20]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내재화 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Loader[21]는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수치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난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22][23]. Tangney와 Dearing[24]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로부터 자녀는 자신을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자기 비난적 평가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재화한다고 하였다[25].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상과 연결되는 수치심은 대인관계능력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김용태[23]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소외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안봉화[26]에 의하면, 수치심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며, 차후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심리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자기개념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부모가 보이는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건강하고 적응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사이에서 수치심이 매개 작용을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수치심 및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및 수치심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이를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북부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시작하기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208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전체 응답자 수는 208명 이었으며 남자 105명(50.5%), 여자 103명(49.5%)으로 성별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년 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47명(22.6%), 2학년이 56명(26.9%), 3학년이 57명(27.4%), 4학년 48명(23.1%)로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2.1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aker, Tulping과 Brown[27]이 개발하고 Gamas에 의해 수정된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사(Parent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28]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 측면의 총 1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가 하는 것은 무엇 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 척도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87과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85과 .87 이었다.

2.2 수치심

수치심은 Cook[29]이 개발해 198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제 5판의 원문을 이인숙과 최해림[3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부적절감, 공허, 자기 처벌, 실수 불안 등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등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가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s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리와 이동귀[31]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거나 제안 하는 것.',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대인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관계형성 및 개시	8	.89
권리-불쾌감에 대한 주장	7	.86
타인에 대한 배려	7	.82
갈등 관리	6	.84
적절한 자기개방	3	.67
전체	31	.92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인관계,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수치심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Baron &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32]을 통해서 주요 변인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매개효과)를 살펴보고, Sobel test를 실시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 및 수치심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표준편차를 구하여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변인들이 정규성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고,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통계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33].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부-과보호	3.00	0.036	0.519	-0.782	0.899
모-과보호	2.99	0.034	0.492	-0.455	0.029
수치심	2.59	0.055	0.795	0.582	-0.065
대인관계 능력	3.18	0.042	0.600	-0.321	-0.177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수치심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세 변인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와 대인관계능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298, p<.001$)를 나타냈다. 이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와 수치심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65, p<.001$)를 나타냈다. 이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관계능력과 수치심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364, p<.001$)를 나타냈다. 이는 수치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1	1-1	1-2	2	3
1. 부모-과보호적 양육태도	1				
1-1. 부-과보호	.758**	1			
1-2. 모-과보호	.746**	.489**	1		
2. 대인관계능력	-.298**	-.407**	-.273**	1	
3. 수치심	.365**	.331**	.377**	-.364**	1

* $p<.05$, ** $p<.01$, *** $p<.001$

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

사이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값	R ²
1단계 (독립→매개)	부모의 과보호	수치심	0.471	7.666**	0.222
2단계 (독립→종속)	부모의 과보호	대인관계 능력	-0.417	-6.589**	0.174
3단계 (독립,매개→종속)	부모의 과보호 수치심	대인관계 능력	-0.290 -0.270	-4.177** -3.886**	0.231

* $p<.05$, ** $p<.01$, *** $p<.001$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수치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47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beta=-.417, p<.001$)을 미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수치심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beta=-.290, p<.001$)와 수치심($\beta=-.270, p<.001$)은 대인관계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β 값이 2단계 -.417에서 3단계 -.290로 줄어들었으며, 3단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β 값이 유의하므로, 수치심은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49 (p<.001)$ 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이로써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이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남·여 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수치심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덧붙여,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수치심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을 거라는 연구가설을 성립시키며, 변인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 대학생의 경우,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대인관계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34],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진다[35]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수치심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수치심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반대로 약화되거나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치심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여 대인관계에서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6][36].

넷째, 수치심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수치

심은 부모의 과보호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수치심은 강해지며, 수치심이 강해질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수치심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는 대학교 및 교육·복지시설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로 반경을 넓히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사회성향상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콘텐츠를 마련함에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의 매개효과검증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상의 내재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수치스럽게 내재화하면서 대인관계 발달을 지연시키는 심리내적상태를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수치심을 완화시켜서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돕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교육 및 심리·정서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연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북부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수치심 및 대인관계를 측정할 때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변인들의 질적인 요인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인인 수치심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현 지각하고 있는 수치심을 측정하였지만, 그 수치심이 대학생이 된 현재에도 부모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여서 발현된 수치심인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내재화된 수치심을 자각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 등을 활용한 절충연구방법으로 연구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대학생인 자녀에게만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정도와 부모가 생각하는 본인의 과보호 정도 간에는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지각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각자가 지각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권석만, *인생의 2막 대학생활*, 서울: 학지사, 2010.
 [2]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John Willy&Sons,inc, 1964.
 [3] 민지현, *대학생의 자기낙담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 정경아,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 남지현, *대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 및 초기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 손경숙,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4권, 제1호, pp.1-27, 2017.
 [7] 최우경,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및 자살생각의 구조*,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226-244, 1991.
 [9] 강주현,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0] J. J. Arnett,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8, No.2, pp.133-143, 2001.
 [11] 최연실,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들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4호, pp.75-89, 2014.
 [12] 강현선, *성인기자녀의 부모의존 동거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 정은영, 장성숙,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과보호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293-312, 2008.
 [14] 구세경, 손미경,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정서, 행동장애연구*, 제24권, 제3호, pp.1-21, 2018.
 [15] 유계숙, 장경은, "혼합적 분석방법으로 살펴본 헬리콥터부모역할의 속성,"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제3호, pp.5-15, 2019.
 [16] 최미혜, "부모의 헬리콥터형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친구관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7권, 제2호, pp.181-205, 2015.
 [17] 석민정,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분노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8] 장휘숙, *인간발달*, 서울:박영사, 2000.
 [19] 서주연,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6.

[20] 박윤선, 채규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 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133-147, 2010.

[21] P. Loader, “Such a shame—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s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Vol.7, pp.44-57, 1998.

[22] K. P. Leith and R. F. Baumeister, “Empathy, shame, guilt, and narratives of interpersonal conflicts: Guilt-prone people are better at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Vol.66, No.1, pp.1-37, 1998.

[23] 김용태,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제11권, 제1호, pp.59-73, 2010.

[24] J. P. Tangney and T. L. Dearing,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2002.

[25] 홍은수,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6] 안봉화, *내면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7] G. Parker, H. Tupling, and L. B. Brown,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52, No.1, pp.1-10, 1979.

[28] 송지영,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 신뢰도 및 타당도검증,” JOURNAL OF THE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제31권, 제5호, pp.979-992, 1992.

[29] D. R. Cook,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Vol.4, pp.197-215, 1987.

[30] 이인숙, 최해림,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 pp.651-670, 2005.

[31] 한나리, 이동귀,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1호, pp.137-156, 2010.

[32]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33]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1995.

[34] 이도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성차(性差)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5] 박지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6] 이지연,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 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353-373, 2008.

저 자 소 개

유 지 수(Ji-Soo Yu)

준회원



■ 2018년 8월 : 덕성여자대학교문화 산업대학원 아동상담전공(석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김 주 연(Ju-Yeo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5년 10월 : La Trobe University 보건학과(박사)
 ■ 2017년 3월 ~ 2019년 8월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심리상담, 사회역학